오송생명과학단지 본격 가동 "눈앞"

바이오 관련 58사 입주 확정 … LG생명과학·CJ제일제당 공장 가동

바이오산업단지로 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분양을 끝마쳐 관련기업들이 속속 입주계획을 세우는 등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.

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,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일대 344만3000㎡에 조성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산업용지 1만8000여㎡를 4월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퍼스트엠씨에이 분양받으면서 입주가 마무리됐다.

이에 따라 오송단지에는 의약품·화장품 제조 및 연구기업 36사를 비롯해 의료기기 관련기업 18사, 건강기능식품 생산기업 4사 등 58사의 입주가 확정됐다.

화장품 제조기업인 파이온텍은 이미 2009년 10월부터 공장 운영에 들어갔으며 LG생명과학과 CJ제일제당 등이 각각 7월과 10월 의약품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.

대한결핵협회는 9000㎡여 규모의 청사 건설공사를 9월까지 끝내고 연구개발분야를 입주시킬 예정이며 세포치료제 등 생산기업인 디에치피코리아도 2010년 중으로 공장운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

특히, 식품의약품안전청, 질병관리본부, 한국 보건인력개발원 등 6개 국책기관 역시 10월 청사를 준공한 후 2010년까지 오송단지로 이전할 예정이다.

또 입주계약을 마친 관련기업 중 39사가 2010년 중으로 착공할 계획이어서 2011년에는 상당수가 생산에 나서 바이오산업단지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출 것으로 보인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5/19>

Copyright © 1991 by CMRI